

중국 여대생의 겨울철 의복 착용활동에 관한 연구 -항주지역을 중심으로-

정 화 연* · 정 명 희* · 문 영 옥**

국제대학 패션계열 교수* · 서경대학 섬유패션디자인과 교수* · 중국 절강이공대학 교수**

A Study on the Clothes-Wearing of Chi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Winter

Hwa-Yeon Jeong* · Myung-Hee Chung* · Ying-Yu Wen**

Prof., Dept. of Fashion Design, Kookje College*

Prof., Dept. of Textile & Fashion Design, Seojong College*

Prof., Fashion Institute, Zhejiang Sci-tech University**

(2011. 6. 2. 접수; 2011. 7. 2. 수정; 2011. 7. 8.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lothes-wearing of Chi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Hangzhou. By random sampling, a total of 183 Chinese female students in Hangzhou aged between 17 and 24 were used into data analysis from November 20, 2010 to January 20, 2011.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36 questions in tota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purpose of wearing clothes in winter, it was found that many female students wore clothes for a "protection purpose" or "ornamental purpose" in winter. As for the question about whether or not underwear was worn in winter, Chinese students answered that more upper underwear was worn than lower underwear. As for the question about the types of outer garments, Chinese students answered that they wore 3-layered upper garments in winter most. The upper garments worn in winter preferred most was long coat(68.3%). In the survey on the types of accessories, More Chinese students wore mufflers and gloves while less students wore hats and earmuffs.

Key Words: Chi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중국 여대생), Clothes-wearing(의복 착용), Protection purpose(신체보호 목적)

I. 서론

중화인민공화국 탄생으로부터 60년이 흘러 자본주의 경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요즘, 중국에는 소비와 관련된 두 개의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따뜻즈정지’와 ‘따정지’가 그것으로 전자는 임신부 및 태아 관련 시장이고 후자는 여성 소비시장을 가리킨다. 둘 다 여성의 구매

력이 확대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소비재의 경우 완제품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만큼 부가가치도 높아 고급 제품 위주의 차별화된 마케팅이 제대로만 먹혀든다면 중국 여성들을 우리의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여지도 그만큼 많아진다(주간무역, 2009). 최근 글로벌 경제가 성장 둔화 우려로 우울한 상황이지만 중국 도시 여성들은 울

해에도 여전히 지갑을 닫지 않을 전망이다. 도시 여성들의 올해 주요 소비 예상 품목으로는 여행(75.9%)이 가장 많았으며 의류 및 악세서리(62.7%), 화장품(40.7%)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아시아경제, 2010). 중국은 2005년 전후로 한국 패션기업의 새로운 대체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중국의류 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중국을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취급해서는 안되고 지역별로 특징을 집중 관찰하고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소비특성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왕야, 김용숙, 2007).

중국에 대한 의류학 분야에서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의복 선호도에 대한 연구,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와 의류산업의 중국진출에 관한 연구, 의복구성 분야에서의 체형이나 의류치수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먼저 의복선호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북경에 거주하는 20~5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효숙, 이소영, 2001)와 북경에 거주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손희정, 김효숙, 2000) 등이 있었으며,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상해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홍병숙, 김경숙, 2002), 북경, 상해, 심천, 장춘에 거주하는 20~30대 직장여성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박혜원, 장춘희, 신혜봉, 2005), 상해지역의 청소년 의복구매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오순, 김정실, 김인옥, 2006) 등이 있었다. 또 의류산업의 중국진출에 관한 연구로는 국내 의류브랜드의 중국진출 현황 및 마케팅전략 제안에 관한 연구(고은주, 송윤아, 2004)와 패션전문가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에 관한 연구(배수정, 2005) 등이 있었으며, 의복구성 분야에서는 북경이나 상해,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복치수나 맞음새, 인체계측 및 체형비교에 관한 연구(임순, 손희순, 김효숙, 손희정, 장희경, 1999; 석혜정, 김인숙, 2007) 등이 있었다.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북경과 상해, 연변 등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에서 상해나 북경 지역은 임대료가 고가인 반면 항주나 쑤저우, 난징 등 2선도시의 경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강력한 소비력을 가지고 있어(연상망, 2010) 시장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복활동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여대생의 겨울철 착장활동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착장활동 및 착의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표준 착의량 설정을 위한 착의량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며 연구 대상이나 지역이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稻垣, 山岸(1990)은 1968년과 1986년에 일본 여대생의 착의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서울과 뉴욕 두 지역 간 의복 착의량의 차이를 비교한 이원자(1994)의 연구, 서울과 연변 간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착의실태를 조사한 오순, 이원자(1999)의 연구와 한,일 여대생의 겨울철 의복의 착장활동을 비교한 연구(정명희, 정화연, 신은영, 2009) 등이 있었다. 지역간, 국제간의 착의량 비교 연구는 기후적응 측면에서 의생활이 타당한가를 판단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그 지역의 표준 착의량 설정에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奧窪, 酒井, 1986)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 착의량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뿐만이 아니라 의류생산업체의 내수 및 외수용 의류생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항주지역에 거주하는 여대생의 겨울철 의복의 착장활동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항주지역은 중국 동해변에 위치한 중국 제일의 관광도시인데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한 습한 아열대 기후대이며 연평균기온이 16.3℃(World Weather Information Service, 2011)로써 여름에는 덥고 습하며 겨울에는 비교적 냉하고 건조한 편이다. 항주지역과 같은 남방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난방용 에어컨을 틀지만 비용이 비싸 일반 가정에서는 아주 추울 때만 사용하며 긴 겨울 추위를 그냥 참고 견딘다(아주경제, 2010). 한 지역의 의복 착장 방식은 기후적 특색에 따른 오래된 착의습관이나 주거형태, 난방 시설 등에 의해 착의량, 착장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항주 지역 여대생의 착장활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중국 항주에 거주하는 나이 17세에서 24세 이하의 의상학 전공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192부 중 응답의 누락이 많고 성실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3부만 통계자료로서 분석하였다. 설문기간은 2010년 10월 20일에서 2011년 1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지의 설문내용은 한, 일 여대생의 겨울철 착장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정명희, 정화연, 신은영, 2009) 결과와 비교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지의 내용을 검토,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중국어로 작성하였다. 설문내용의 구성은 겨울철 의복의 착용목적 2항목, 겨울철 내복의 착용유무와 형태 5항목, 겨울철 겉옷의 착장형

태 9항목, 겨울철 액세서리의 착장형태 17항목 및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연령, 한 달 용돈, 한 달 용돈 중 의복비 지출비용 3항목을 포함하여 총 36항목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 중 착용목적과 착용유무에 관한 것은 ‘매우 그렇다’를 1, ‘매우 그렇지 않다’를 5로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2.0 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인구통계적 특성

인구통계적 특성으로는 연령과 한 달 용돈, 한 달 용돈 중 의복 지출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표 1). 응답자는 20세가 39.3%로 가장 많았으며, 한 달 용돈은 1000-1500元이 34.4%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의복 지출비는 “일정하지 않다”, “용돈에 의복 지출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무응답 등을 제외한 나머지 11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300元 구간이 17.5%로 가장 많았다.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단위: n(%)

구 분		빈 도			
나이	17세	2 (1.1)			
	18세	8 (4.4)			
	19세	41 (22.4)			
	20세	72 (39.3)			
	21세	28 (15.3)			
	22세	13 (7.1)			
	23세	16 (8.7)			
	24세	3 (1.6)			
한 달 용돈	500元 미만	11(6.0)	의복 지출비	100元 미만	8(4.4)
	500-1000元 미만	43(23.5)		100-200元 미만	20(10.9)
	1000-1500元 미만	63(34.4)		200-300元 미만	32(17.5)
	1500-2000元 미만	18(9.8)		300-400元 미만	22(12.0)
	2000-3000元 이상	12(6.6)		400-600元 미만	16(8.7)
	무응답	36(19.7)		600-1000元 미만	7(3.8)
				1000元以上	9(4.9)
				무응답	69(37.7)

III. 연구결과

1. 겨울철 의복의 착용목적

겨울철 의복의 착용목적에 관한 설문은 신체 보호와 장식적 목적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신체보호 목적에서 ‘그렇다’라는 응답률이 59.6%, ‘매우 그렇다’가 22.4%로 나타났고, 장식적 목적에서는 ‘그렇다’라는 응답률이 45.4%, ‘보통’이 40.4%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중국 항주 지역 여대생의 경우 겨울철 의복의 두 가지 착용 목적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즉 겨울철 의복 착용 시 장식 목적보다는 신체보호 목적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겨울철 내복의 착용유무와 형태

1) 내복의 착용유무

내복은 브래지어와 팬티를 제외한 속옷으로, 겨울철 내복을 착용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겨울철 상의 내복 착용 유무의 경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전체의 79.3%로 대부분 상의 내복을 착용하는 것

로 나타났다. 또 겨울철 하의 내복 착용 유무에서도 중국 여대생은 하의 내복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착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 하의 내복 착용 유무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해본 결과 상의내복이 1.91, 하의내복이 2.13으로 상의 내복 착용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정명희, 정화연, 신은영, 2009)와 비교해보면 한국 여대생은 상의내복 착용유무에 대한 평균값이 3.59, 일본 여대생은 2.42였으며 하의 내복 착용유무에 대한 평균값이 4.05, 일본 여대생은 3.08로 나타났다. 이는 한, 일 여대생의 경우 중국 여대생에 비해 상, 하의 내복을 덜 착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국의 경우 겨울철 실내 난방 시설 부족으로 인해 내복을 더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연변 지역 여대생의 착의 실태 조사(오순, 이원자, 1999)에서 연변의 주택형태가 연립주택이 많으며 통학 형태는 자전거나 도보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때문에 겉옷 상의 이외에도 속옷에 의한 착의조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2) 내복의 형태

겨울철에 내복을 착용하는 경우, 상의 내복의

<표 2> 겨울철 의복의 착용 목적

단위: n(%)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	t
신체보호	41(22.4)	109(59.6)	32(17.5)	1(0.5)	0(0)	1.96	-6.001***
장식	15(8.2)	83(45.4)	74(40.4)	9(4.9)	2(1.1)	2.45	

***P<.001

<표 3> 겨울철 상의 내복의 착용 유무

단위: n(%)

구 분	평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상의 내복	1.91	68(37.2)	77(42.1)	26(14.2)	11(6.0)	1(0.5)	0(0)
하의 내복	2.13	53(29.0)	70(38.3)	42(23.0)	15(8.2)	2(1.1)	1(0.5)

<표 4> 상의 내복의 형태

단위: n(%)

상의내복	긴소매	민소매	반소매	민소매와 긴소매 혼용	칠부소매	기타
빈 도	142(77.6)	14(7.7)	9(4.9)	7(3.8)	5(2.7)	6(3.2)

<표 5> 하의 내복의 형태

단위: n(%)

하의내복	일반내복	레깅스	타이즈	혼용A	스타킹	혼용B	기타	무응답
빈 도	63(34.4)	46(25.1)	20(10.9)	16(8.7)	14(7.7)	13(7.1)	8(4.4)	3(1.6)

혼용A : 일반내복과 레깅스, 타이즈 혹은 스타킹과 혼용하는 경우.

혼용B : 레깅스와 타이즈 혹은 스타킹과 혼용하는 경우.

<표 6> 의복 착용 겹침 수

단위: n(%)

의복 겹침수	2겹	3겹	4겹	5겹	기타	무응답
빈 도	58(31.7)	100(54.6)	18(9.8)	4(2.2)	2(1.1)	1(0.5)

형태는 긴소매 형태가 77.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민소매>반소매>칠부소매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정혜원(2004)의 연구에서는 20대 한국 여성이 겨울철에 착용하는 상의 내복의 형태는 민소매의 착용이 가장 많았고 안 입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으며, 정명희, 정화연, 신은영(2009)의 연구에서 역시 한, 일 여대생 모두 민소매 형태를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여대생과 차이를 보였다.

바지 안에 착용하는 하의 내복의 형태로는 일반 내복의 착용이 3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레깅스>타이즈>스타킹 순으로 나타났다(표 5). 또 하복 착용 시 내복의 길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74.9%에 해당하는 137명의 여학생이 9부 형태를 착용한다고 하였으며 짧은 쇼츠 형태나 무릎길이, 7부 길이의 하의 내복을 입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겨울철 겉옷의 상의 착용형태

1) 의복 착용 겹침 수

브래지어를 제외하고 겨울철 상의로 착용하는 의복의 겹침 수는 3겹 착용이 54.6%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6). 3겹 다음으로는 2겹>4겹>5겹 순으로 나타났다.

2) 주로 착용하는 외투의 형태

겨울철에 주로 착용하는 외투의 형태는 2가지씩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때 파카는 오리털이나 솜 등으로 누벼 만든 영덩이 길이의 외의, 점퍼는 통은 넓고 손목과 허리 부분은 고무줄로 조르게 되어 있는 홑겹의 외의, 니트 풀오버는 머리부터 입는 니트 소재로 만든 외의로 정의했다. 조사 결과, 롱코트>파카>반코트>니트 풀오버>점퍼>재킷 순으로 재킷은 거의 선호하지 않

<표 7> 외투의 형태

단위: n(%)

외투 형태	롱코트	파카	반코트	니트 풀오버	점퍼	재킷
빈도	125(68.3)	85(46.4)	67(36.6)	30(16.4)	16(8.7)	3(1.6)

()는 중국 여대생(n=183)에 대한 비율임.

았다(표 7).

선호하는 외투 형태에 대한 선행연구(정명희, 정화연, 신은영, 2009)와 비교해 보면 한국 여대생은 반코트>롱코트>점퍼 순의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일본 여대생의 경우 롱코트>반코트>재킷의 선호도를 나타냈고, 양국 모두 니트 폴오버는 선호도(한국, 6.6%, 일본, 0.6%)가 가장 낮았다. 반면 중국 여대생의 경우 롱코트 다음으로 파카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니트 폴오버도 한, 일 여대생에 비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세 나라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3) 외투 안에 주로 착용하는 의복의 형태

겨울철 외투 안에 주로 착용하는 의복의 형태를 2가지씩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스웨터(75.4%)를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폴라티, 카디건, 티셔츠, 블라우스, 남방의 순으로 나타나 외투 안에 블라우스나 남방의 착용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4) 외투 안에 주로 착용하는 의복스타일

겨울철 외투 안에 주로 착용하는 의복스타일 또한 2가지씩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와 같다. 티셔츠+스웨터, 폴라티+스웨터와 티셔츠+카디건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로는 폴라티+블라우스, 폴라티+티셔츠라고 응답하였다(표 9).

5. 겨울철 겉옷의 하의 형태

1) 하의 형태

겨울철에 주로 착용하는 하의의 형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는 바지만 착용하는 경우가 57.9%로 전체 비율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바지를 주로 착용하는 여대생도 30.6%로 바지 착용이 스커트 착용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0).

박재경, 남윤자, 최경미(2004)의 연구와 정명희 등(2009)의 연구에서는 한국 여대생은 바지를 선호하고 스커트의 선호도는 낮은 반면 일본 여대생은 한국 여대생에 비해 스커트를 착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 후쿠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착장활동을 조사한 海道, 服部(2005)의 연구에서는 겨울철에 여대생들의 바지 착용이 스커트 착용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착장형태에 있어서 나라 간, 지역 간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8> 외투 안 의복의 형태

단위: n(%)

외투 안 의복형태	스웨터	폴라티	카디건	티셔츠	블라우스	남방	재킷
빈 도	138(75.4)	44(24.0)	37(20.2)	27(14.8)	18(9.8)	17(9.3)	14(7.7)

()는 중국 여대생(n=183)에 대한 비율임.

<표 9> 외투 안 의복스타일

단위: n(%)

의복 스타일	폴라티 + 폴라티	티셔츠 + 티셔츠	남방 + 남방	폴라티 + 티셔츠	폴라티 + 남방	폴라티 + 블라우스
빈 도	14(7.7)	12(6.6)	17(9.3)	11(6.0)	13(7.1)	7(3.8)
의복 스타일	폴라티 + 카디건	폴라티 + 스웨터	티셔츠 + 남방	티셔츠 + 블라우스	티셔츠 + 카디건	티셔츠 + 스웨터
빈 도	19(10.4)	50(27.3)	22(12.0)	13(7.1)	38(20.8)	69(37.7)

()는 중국 여대생(n=183)에 대한 비율임.

<표 10> 하의 형태

단위: n(%)

하의형태	바지만 착용	바지 주로 착용	스커트 주로 착용	스커트만 착용	기타
빈 도	106(57.9)	56(30.6)	12(6.6)	6(3.3)	3(1.6)

2) 주로 착용하는 바지의 형태

겨울철에 주로 착용하는 바지의 형태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중국 여대생의 경우 청바지를 가장 선호했으며(67.8%) 다음으로는 캐주얼바지>레깅스>정장바지의 순으로 정장바지의 선호도는 극히 낮았다(표 11).

이는 북경 여성이 좋아하는 외출복 스타일을 조사한 선행연구(김효숙, 2000)에서 좋아하는 외출복 스타일의 경우 캐주얼웨어가 52.2%, 바지정장이 28.9%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3) 스타킹이나 타이즈의 착용 여부

스커트를 착용하는 경우 스타킹이나 타이즈

를 착용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이때 스타킹은 나일론으로 된 긴 형태의 스타킹으로 정의하였으며 타이즈는 스타킹과 같은 형태이나 면 등 두꺼운 소재로 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겨울철 겉옷의 하의 형태에 관한 조사에서 스커트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여대생 중 본 설문에 응한 76명 중 43.43%가 “그렇다”라고 답하였고 “매우 그렇지 않다”는 1.3%를 나타내 대부분의 경우 스커트와 함께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레깅스와 함께 착용하는 형태

스커트와 레깅스를 함께 착용하는 경우 발에 착용하는 형태에 관한 조사 결과, 스타킹이

<표 11> 바지의 형태

단위: n(%)

바지형태	청바지	캐주얼 바지	레깅스	정장바지	무응답
빈 도	124(67.8)	26(14.2)	20(10.9)	7(3.8)	6(3.3)

<표 12> 스타킹 / 타이즈의 착용 유무

단위: n(%)

구 분	평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스타킹 착용유무	2.13	20(26.3)	33(43.4)	17(22.4)	5(6.6)	1(1.3)

()는 스커트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여대생 중 본 설문에 응한 76명에 대한 비율임.

<표 13> 레깅스와 함께 착용하는 형태

단위: n(%)

레깅스와 함께 착용하는 품목	스타킹	양말	타이즈	맨발	기타
빈 도	32(42.1)	24(31.6)	14(18.4)	4(5.2)	2(2.6)

()는 스커트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여대생 중 본 설문에 응한 76명에 대한 비율임.

42.1%로 가장 많았으며 스타킹 다음으로 양말> 타이즈>맨발 순으로 나타났다(표 13).

6. 겨울철 액세서리의 착용형태

1) 모자

겨울철 모자의 착용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는 8.2%에 불과했으며 “보통”의 경우는 45.9%를 나타냈고 “그렇지 않다” 도 26.2%를 나타내 겨울철에 모자를 반드시 착용하고자 하는 경향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표 14). 겨울철에 모자를 착용하는 목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체보호와 장식 두 목적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15). 모자의 신체보호 목적에 관해 “그렇다”의 응답률이 48.1%, “보통”이 33.9%로 나타났으며 장식적 목적에서는 “보통”이 44.3%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렇다”가 26.8%로 나타났다.

겨울철에 가지고 있는 모자의 개수에 관한 조사 결과 <표 16>에서는 1개가 34.4%로 가장 많았으며 2개가 24.0%, 5개 이상도 1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머플러

겨울철 머플러의 착용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17>에서와 같이 대다수는 겨울철에는 머플러를 착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겨울철에 머플러를 착용하는 목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체보호와 장식 두 목적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8). 즉 신체보호 목적이 장식 목적보다 평균값에서 더 낮은 값을 나타내 머플러를 장식 목적보다는 신체 보호용으로 착용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

<표 14> 모자 착용 유무

단위: n(%)

구 분	평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모자 착용유무	3.07	15(8.2)	26(14.2)	84(45.9)	48(26.2)	10(5.5)

<표 15> 모자 착용 목적

단위: n(%)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평균
신체보호	27(14.8)	88(48.1)	62(33.9)	3(1.6)	2(1.1)	1(0.5)	2.42
장식	14(7.7)	49(26.8)	81(44.3)	35(19.1)	4(2.2)	0(0)	2.81

<표 16> 모자 개수

단위: n(%)

모자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무응답
빈 도	19(10.4)	63(34.4)	44(24.0)	22(12.0)	9(4.9)	23(12.5)	3(1.6)

<표 17> 머플러 착용 유무

단위: n(%)

구 분	평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빈 도	2.21	42(23.0)	76(41.5)	52(28.4)	10(5.5)	3(1.6)

<표 18> 머플러의 착용 목적

단위: n(%)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평균	t
신체보호	37(20.2)	97(53.0)	45(24.6)	2(1.1)	1(0.5)	1(0.5)	2.07	6.566***
장식	11(6.0)	68(37.2)	74(40.4)	26(14.2)	4(2.2)	0(0)	2.69	

***P≤.001

<표 19> 머플러 매수

단위: n(%)

머플러매수	0매	1매	2매	3매	4매	5매이상
빈 도	2(1.1)	15(8.2)	43(23.5)	51(27.9)	41(22.4)	31(16.9)

났다.

가지고 있는 머플러의 수를 조사한 결과, 2~4매가 22%~28%가량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5매 이상도 16.9%로 나타나 모자보다 머플러의 겨울철 활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3) 장갑

겨울철 장갑의 착용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가 42.1%, “보통”이 31.1%로 나타나 대다수 여학생들이 겨울철에 장갑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겨울철에 장갑을 착용하는 목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두 목적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

데(표 21), 신체 보호 측면의 경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대한 응답률이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장식적 측면의 경우 “보통”과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 70% 이상으로 나타나 겨울철에 장갑을 착용하는 목적은 장식적 측면보다는 신체보호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 가지고 있는 장갑의 개수에 관한 조사 결과 <표 22>에서와 같이 2개, 1개, 3개, 4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귀마개

겨울철 귀마개의 착용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 47.0%, “그렇지 않다”가 28.4%로 나타

<표 20> 장갑 착용 유무

단위: n(%)

구 분	평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빈 도	2.24	38(20.8)	77(42.1)	57(31.1)	8(4.4)	3(1.6)

<표 21> 장갑의 착용 목적

단위: n(%)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	t
신체보호	55(30.1)	96(52.5)	31(16.9)	1(0.5)	0(0)	1.88	11.379***
장식	7(3.8)	32(17.5)	80(43.7)	53(29.0)	11(6.0)	3.16	

***P≤.001

<표 22> 장갑 개수

단위: n(%)

장갑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빈도	4(2.2)	44(24.0)	75(41.0)	37(20.2)	16(8.7)	7(3.8)

났다(표 23). 겨울철에 귀마개를 착용하는 목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두 목적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신체 보호 측면에서는 “그렇다” 혹은 “보통”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장식적 측면의 경우 “보통”과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표 24). 즉 중국 여대생의 경우 귀마개 착용 목적이 장식보다는 신체보호를 위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대생의 4가지 품목의 겨울철 액세서리 착용 유무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모자 3.07, 머플러 2.21, 장갑 2.24, 귀마개가 3.31로, 모자나 귀마개의 착용 정도보다는 머플러나 장갑의 착용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 가지고 있는 귀마개의 개수에 관해 조사한 결과, 1개가 41.0%로 가장 많았으며 0개가 24.6%로 나타나 약 65% 가량이 귀마개를 소유하지 않거나 하나 정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한편 겨울철 액세서리의 착용 유무에 대한 선행연구(정명희, 정화연, 신은영, 2009)와 비교해 본 결과 모자의 착용유무에 대한 평균값은 한국 여대생이 3.56, 일본 여대생이 3.74, 중국 여대생이 3.07로 나타나 중국 여대생이 더 모자 착용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머플러 착용유무의 경우 평균값은 한국 여대생이 2.32, 일본 여대생이 2.25, 중국 여대생이 2.21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 장갑 착용 유무에 대한 평균값이 중국 2.24, 한국 2.91, 일본 3.18로 중국의 평균값이 가장 낮아 중국 여대생이 착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귀마개의 경우는 한국은 4.17, 일본은 4.13, 중국은 3.31로 나타나 한국과 일본 여대생은 귀마개의 착용이 많지 않았으며 다른 액세서리 아이템과 마찬가지로 중국 여대생의 착용정도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귀마개 착용 유무

단위: n(%)

구분	평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빈도	3.13	5(2.7)	33(18.0)	86(47.0)	52(28.4)	7(3.8)

<표 24> 귀마개의 착용 목적

단위: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	t
신체보호	31(16.9)	97(53.0)	50(27.3)	4(2.2)	1(0.5)	2.16	8.922***
장식	8(4.4)	29(15.8)	86(47.0)	46(25.1)	14(7.7)	3.16	

***P≤.001

<표 25> 귀마개 개수

단위: n(%)

귀마개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기타	무응답
빈도	45(24.6)	75(41.0)	27(14.8)	2(1.1)	1(0.5)	30(16.4)	3(1.6)

<표 26> 신발의 형태

단위: n(%)

신발형태	앵글부츠	스니커즈(운동화)	롱부츠	구두
빈도	108(59.0)	95(51.9)	86(47.0)	22(2.0)

()는 중국 여대생(n=183)에 대한 비율임.

5) 신발

겨울철에 주로 신는 신발의 형태를 2가지씩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 결과, 앵글부츠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스니커즈>롱부츠>구두 순으로 나타났다(표 26).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국 여대생의 겨울철 표준 착의량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 뿐만이 아니라 의류생산업체의 내수 및 외수용 의류생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항주지역에 거주하는 여대생의 착용활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겨울철 의복의 착용목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체보호 목적에서 ‘그렇다’라는 응답률이 59.6%, ‘매우 그렇다’가 22.4%로 나타났고, 장식적 목적에서는 ‘그렇다’라는 응답률이 45.4%, ‘보통’이 40.4%로 나타나 두 목적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국 항주지방에 거주하는 여대생의 경우 두 목적 중 신체보호 목적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겨울철 내복의 착용유무에서는 상의와 하의 내복 모두 착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특히 하의 내복에 비해 상의 내복 착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복의 형태에서는 상의는 긴 소매 형태를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하의는 9부 길이의 일반 내복의 착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일본이나 한국 지역의 여대생보다 긴 형태의 내복을 선호하며 이를 통해 더 보온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거 건물의 난방이 잘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겹옷의 착용은 겨울철 상의는 3겹을 착용하는 경우가 54.6%, 2겹은 31.7%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 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즉, 중국 여대생은 선호하는 겨울철 의복의 겹침 수가 2-3겹이 대부분이었으나 한국과 일본 여대생은 3-4겹으로 중국 여학생에 비해 더 많이 겹쳐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 착용하는 외투의 형태로는 롱코트와 파카를 선호하였으며, 외투 안에 주로 착용하는 의복의 형태로는 스웨터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폴라티와 가디건 순으로 나타났다.

4. 겨울철 착용하는 하의의 스타일에서는 중국 여대생의 88.5%가 바지만 입던지 혹은 바지를 주로 착용한다고 하였으며 주로 착용하는 바지 형태는 청바지가 67.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캐주얼 바지로 나타났다. 또 스커트를 착용할 경우 스타킹이나 타이즈 착용 유무에 있어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69.7%를 나타내 착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깅스를 신을 경우 발의 형태에 관한 질문에서는 긴스타킹을 함께 신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양말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액세서리 착용형태에서는 모자의 경우 착용하지 않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유한 모자 개수는 1개가 34.4%로 가장 많았다. 머플러의 경우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착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유한 머플러 개수는 2개부터 4개 이상까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5개 이상도 16.9%로 나타나 모자에 비해 겨울철 보온을 위해 활용도가 더 높은 아이템으로 보인다. 한편 장갑의 경우 겨울철에 착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귀마개는 착용 정도가 다른 아이템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

하는 장갑 개수는 2개가 가장 많았으며 귀마개는 1개가 41%,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24.6%로 나타났다.

겨울철에 주로 신는 신발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신발의 형태는 앵글부츠로 나타났고 구두의 착용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중국 여대생의 겨울철 착장활동을 살펴본 결과 한국이나 일본의 여대생과는 겨울철 착장활동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즉 중국 항주지역의 여대생의 경우 보온을 위해 긴 상하의 내복류, 롱코트, 파카, 스웨티, 바지 등 두껍고 긴 의류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착장 형태를 보이는 것은 주택의 난방 시설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그 지역의 주거 형태, 난방 시설 등이 의복 착장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하여 볼 수 있었다. 중국은 많은 경제적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의 의류 기업들도 활발한 진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연구가 상해나 북경, 연변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중국 내에서의 경제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2선 지역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라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는 중국 내 의류제품시장의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밀거름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가 중국 여대생의 겨울철 표준 착의량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중국 진출을 위한 의류생산업체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의상학 전공자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항주 지역 여대생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고은주, 송운아. (2004). 국내 의류브랜드의 중국진출 현황 및 마케팅전략 제안. *한국의류학회지*, 28(2), 212-223.
- 김효숙. (2000). 중국여성 소비자의 의복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 예술논집*, 23, 108.
- 김효숙, 이소영. (2001). 중국 여성소비자의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1-10.
- 박재경, 남윤자, 최경미. (2004).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착의 행동 비교. *복식*, 54(3), 47.
- 박혜원, 장춘희, 신혜봉. (2005). 중국 대도시 직장여성들의 의복구매행동 비교연구 - 북경, 상해, 심천, 장춘의 20-30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9(1), 124-135.
- 배수정. (2005). 패션전문가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에 관한 연구-중국 대련의 의류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9(12), 1562-1570.
- 석혜정, 김인숙. (2007). 중국진출 한국 여성복 정장업체의 치수규격 현황 및 적합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1(7), 1148-1156.
- 손희정, 김효숙. (2000). 중국 여대생의 의복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4(2), 85-93.
- 오순, 이원자. (1999). 서울, 연변간 착의실태 조사 분석.착의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7), 1019-1029.
- 오순, 김정실, 김인옥. (2006). 한국, 중국 청소년들의 의복구매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패션과 니트*, 4(1), 40-49.
- 왕야, 김용숙. (2007).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 특성과 의복구매행동.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145-157.
- 이원자. (1994). 표준착의량 설정을 위한 착의 분석-서울과 뉴욕 지역 여대생의 착의량 비교.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예술*, 17(1), 87-100.
- 임순, 손희순, 김효숙, 손희정, 장희경. (1999). 한국과 중국조선족 여대생의 체형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8), 1228-1239.

- 정명희, 정화연, 신은영. (2009).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 겨울철 의복의 착용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5), 679-690.
- 정혜원. (2004). 여성의 내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3/4), 422-432.
- 중국 여성, 그 분출하는 욕망. (2009. 08. 30). 주간 무역. 자료검색일 2011. 05. 23, 자료출처 http://www.weeklytrade.co.kr/sub_read.html?uid=7412§ion=sc14§ion2
- 중국 도시여성 돈쓰는 재미에 '폭'. (2010. 08. 31). 아시아 경제, 자료검색일 2011. 05. 20, 자료출처 <http://er.asiae.co.kr/erview.htm?idxno=2010083115252437885>
- 중, 남방 도시 난방사업 인기. (2010. 10. 29). 아주 경제. 자료검색일 2011. 05. 18, 자료출처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01029000022>
- 중국 소비자 3대 특징. (2010. 11. 13). 연상망, 자료검색일 2011. 05. 20,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voicec/100116458010](http://blog.naver.com/voicec/100116458010)
- 홍병숙, 김경숙. (2002). 한국과 중국 20~30대 중상류층 여성의 의복구매행동.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5, 137-150.
- World Weather Information Service. 자료검색일 2011. 05. 23, 자료출처 <http://worldweather.wmo.int/001/c00556.htm>
- 奥窪朝子, 酒井恒美. (1986). 快適で健康的の着衣習慣形成のための着衣量の個人差に関する研究 (第1-2報). *日本纖維製品消費科學誌*, 27(12), 539-545.
- 稻垣和子, 山岸雅子. (1990). 女子大學生の着衣推移實態に関する研究(第1報). *日本纖維製品消費科學学会誌*, 31(10), 25-34.
- 海道貴子, 服部由実子. (2005). 福井市およびその周辺に在住する大学生の着用行動. *福井大学地域環境研究教育センター研究紀要*, 12, 33-42.